

디자인 인생 50년... 지역 디자인 변천사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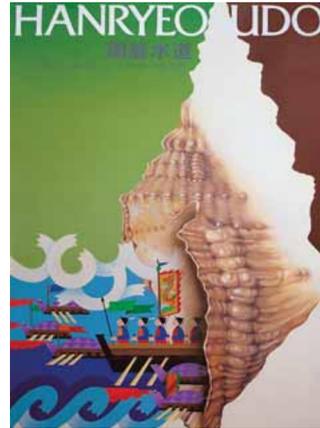
민경철 작가 고희 기념 디자인·회화전



21~27일 무등현대미술관
철필에 해먹 찍어 그린 작품부터
컴퓨터 그래픽 작품까지 30여점 전시
디자인화집·에세이 책 출판기념회도



'무등산'



'한려수도'



'장미의 도발'

“도안사라고 불린 게 잊겨 같은데 벌써 50년이 지났네요. 지금은 산업디자이너들이 인정받고 디자인 종류도 다양해진 것을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 디자인 변천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민경철(70) (주)해광기획 대표는 지역 디자인 역사와 인생 궤도를 함께 했다. 해남에서 태어난 그는 서라벌예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1972년 옛 전남매일신문 디자인실에 입사하며 디자인에 발을 들였다. 이후 30년간 옛 전남일보 출판국 디자인 과장, 광주일보 월간국 편집부장 등을 거치며 인쇄·편집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한다.

고희를 맞은 민 대표가 50년 디자인 인생을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21일부터 27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그래픽 디자인전 '그때와 지금'과 회화전 '시간 속 풍경을 탐하다'를 동시에 연다. 지난 1991년 이후 두번째 개인전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최근 펴낸 디자인화집 '그때와 지금', 에세이집 '뒤돌아 보면 모두가 그리워-세월의 흔적', 탐방기행집 '내 멋대로 발길 닿는 데로' 출판기념을 겸해 열려 의미를 더한다.

탐방기행집은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잡지 '예향' 편집을 담당하며 지역작가들과 함께 여행한 이야기를 모아놓았다. 1부 '고독 조차...편안한 섬', 2부 '씹을수록 고소한 맛', 3부 '반하고 놀라는...등산', 4부 '나를 치유해 준...국내여행' 5부 '바람같이 살라하는...외국 여행'으로 나눠 명소, 산, 맛집을 소개한다.

에세이집은 입대하던 1970년부터 5·18, 다문화, 세월호까지 틈틈이 쓴 시대 이슈에 대한 단상을 실었다.

민 대표는 '나이 70을 넘으니 인생을 정리해보고 싶었다'며 "그동안 쓴 글, 그림, 사진, 그래픽 디자인을 묶어 책으로 펴냈다"고 소개했다.

30여점이 출품된 전시에서는 광주·전남 디자인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과거 철필(鐵筆)에 해먹(海蟻)기름으로 만든 먹(墨)을 찍어 그린 작품부터 에어브러시, 컴퓨터를 활용한 작품까지 다양하다.

1983년 제18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 특선에 뽑힌 한려수도 관광포스터는 커다란 소라에서 거북선이 빠져나오는 모습이다. 지역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점이 눈에 띈다.

그밖에 해남 공룡 캐릭터 '디노', 개항 100주년 영산강 포스터 등 지역 관광 디자인을 비롯

해 과자, 맥주, 인삼주 등 포장지 디자인을 만날 수 있다.

또한 회화전시에는 여행을 좋아하는 민 대표가 전국 방방곡곡을 방문하며 그린 작품을 선보인다. 2층에는 광고에 쓰였던 동물·풍경을 비롯해 전국을 돌며 촬영한 사진 작품도 전시한다.

전시장 한편에는 직접 그린 부모님, 장인어른·장모의 초상화도 배치해 그리움을 내보인다.

“예전 가전제품은 무조건 백색이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차 생활 속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면서 디자인 역할이 중요해졌어요. 이번 전시에서 과거 디자인을 살펴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씨는 전남산업디자인협회 창립 부회장(1978), 남도시각디자인협회 창립회장(1980), 한국시각디자인협회 호남지부장(1980), 광주전남디자인협회의 이사장(1983) 등 초창기 지역 디자인계 기반을 다졌다. 1974년 전매 디자인포장전시회를 시작으로 단체전 20여회에 참여했고 전남미술대전 시예부문 입선,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특선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223-6677. /김용희기자 kimyh@

김대길 고향 여수서 조각전



내달 7일까지 GS칼텍스예술마루... 70여점 작품

여수 GS칼텍스 예술마루가 김대길 조각전 '생명력'의 힘, 그 앞에 서다'를 5월7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예술마루와 광주시립미술관이 협업해 개최하는 첫 번째 행사다. 지난 2월 광주시립미술관에 이어 마련한 순회전시다. 전시에는 조각작품 70여점이 출품된다.

김 작가는 여수 출신으로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독특한 조형적 언어를 통해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는 유기적 생명체들을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다.

작품은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씨앗'을 모티브 삼아 삶을 잔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정과 흰색으로만 제작해 조화를 이룬 점이 특징이다. 흑백은 낮과 밤, 음양 조화, 세상에 존재하는 대칭형 구조 존재를 의미한다. 작품 '생명력-Father'는 남성적인 느낌이다. 직접 보행을 하는 인간이 수많은 약속을 통해 사회를 유지해 나가듯 우리 역사를 지켜온 아버지의 존재와 생명력을 상징한다.

어머니를 상징하는 '생명력-Mother'는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연 원리를 형상화했다. 마치 회전하고 있는 듯한 작각을 불러 일으키며 작품 자체의 에너지를 극대화시킨다.

김 작가는 "작품을 통해 상상과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생명력의 위대함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전남미술대전 조각부문 최고상, 목우회 조각부문 특선 등을 수상했다.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인도, 일본, 대만 등 전세계에서 전시를 열며 작품을 선보였다. 입장료 3000원. 문의 1544-766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엄마의 품'... 선종훈 작가 초대전 갤러리 리채 28일까지

섬세한 소묘로 그린 여인을 캔버스에 옮기고 있는 선종훈 작가가 18일부터 28일까지 갤러리 리채에서 초대전 '엄마의 품'을 연다.

고향 광주에서 25년 만에 전시를 갖는 선 작가는 80대 노모에게 보내는 사랑을 주제로 작품들을 구성했다.

작품 '봄날', '엄마의 품' 등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눈을 감고 있거나 반쯤 뜨며 관객 시선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인은 인형처럼 작은 얼굴, 큰 눈, 긴 팔, 풍만하고 화려한 드레스로 표현했다. 또 풍경은 흠날리는 꽃봉오리들을 담아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선 작가는 광주비엔날레에서 5·18 관련 사진을 "못 보겠다"며 전시장을 나간 어머니 모습에서 작품 모티브를 얻었다.

작가는 당시 유행처럼 변했던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작업을 꼭 따라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후 여인상을 통해 고통과 슬픔,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 미술대를 졸업하고 선화예고 교사로 재직하던 중 프랑스 유학을 떠나며 시작한 정제성에 대한 고민도 엿볼 수 있다.

선씨는 1989년 개인전을 시작으로 주로 서울에서 활동했으며 광주에서는 지난 1993년 갤러리 아그베에서 전시를 가졌다. 병인순교 150주년 기념특별전(2016), 중국 베이징 2인전 'Lady and Landscape'(2010) 등 단체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412-000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당신의 하늘'

문화예술도서관 '흥놀이'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광주문화재단에 자리한 문화예술도서관이 '2017 흥(興)놀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람들 No.3. '나와 광주'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7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된 '문화집단 열혈지구'(대표 전경화)가 진행을 맡았다.

문학과 인형극, 미술, 영상, 연극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시민들이 흥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지역공동체프로젝트이다.

광주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재인식을 통해 '개개인의 인생스토리'를 무대 위에 올리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20일부터 11월1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 15명 모집이며, 오는 21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796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등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